

원 윤 수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인문과학 연구소장

본 연구소 자문위원

본 연구소에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 “또 하나의 불어권 아메리카” 발표 논문

언어의 힘

퀘벡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의 불어의 역할

원 운 수

저는 오늘 캐나다 불어권 지역과 이 지역의 사람들의 자기 정체성 인식에 있어서 불어가 행한 역할이 무엇이며, 또 앞으로 행할 역할이 무엇인지를 캐나다 불어권의 역사와 그 정착과정의 맥락 속에서 간략하게 고찰하고자 합니다. 본 발표문에 대한 첫 구상은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된 복합 이민 사회인 오늘날의 캐나다에서 주변 영어권에 둘러싸여 언어의 고도(孤島)로 떠있으면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언어를 잃지 않은 퀘벡지역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대 불어문화권 연구소 자문위원을 맡아 불어권을 가능케 해주는 결정적 토대로서 불어의 역할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이래, 주변 영어권 문화로부터 받는 끊임없는 동화의 위협과 영어권 주에 비해 9:1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북미 대륙에서 독특한 불어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퀘벡지역은 저의 남다른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에 불어권 연구 국제 협의회 연차 학술대회 참석차 캐나다를 방문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이 방문을 통해 저는 저의 이러한 관심을 더욱 구체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곳에서 만났던 많은 퀘벡인들은 그들의 정체성 확립에 불어가 행한 역할을 그들의 역사적인 체험을 통해 나에게 들려주었으며, 제게는 그것이 일제 말기의 조선어말살 정책이라는 뼈아픈 역사적 체험을 가진 우리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더욱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미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어떤 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그 보존에 있어서 언어가 지니는 힘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저의 이 글은 어떤 이론적인 논증의 글이라기 보다는, 그때 캐나다 방문에서 받았던 깊은 인상과 우리와 유사한 역사적 체험을 가진 캐나다 불어권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 만큼 구체적이고 깊이있는 논의보다는 캐나다 불어권에 대한 저의 관심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적하는 정도로 만족할까 합니다. 물론 그러다 보면 이 발표가 자칫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는 정도로 그칠지도 모르나, 중요한 것은 문제의 공유를 통해서 서로의 역사와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돈독히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바로 그 점이 아닐까 합니다.

캐나다 지역의 불어와 불어권 문화의 성격을 규명하는 작업은 그 선행 작업으로 불어권 문화의 정착과정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캐나다에서 사용되는 불어와 이를 통해 배양된 불어권 문화가 정착하기까지에는 숱한 역사적 난관이 있었고, 캐나다 지역의 불어와 불어권 문화는 바로 이러한 난관을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그것을 크게 4단계의 과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 시기는 1534년 자크 카르티에 Jacques Cartier가 생 로랑 Saint Laurent을 발견한 것을 시초로 하여 유럽인들에 의해 캐나다에 대한 식민지 개발이 진행된 시기입니다. 두번째 시기는 프랑스 통치 시기로 흔히 누벨 프랑스의 시기라고 불리는데, 이 시기는 프랑스와 영국 간의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했던 시기입니다. 결국 그 과정에서 7년 전쟁의 패배로 프랑스가 신대륙에서의 주도권을 상실하고 영국이 캐나다를 통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제 3기에 해당하는 영국 통치기입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이 영국 통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순조롭게 하나의 독자적이고 지배적인 문화로 성장해 오던 이 지역 '불어권 문화'는 영국의 통치 후 '영어권 문화'와 마찰을 빚으면서 점차 수세적 입장에 몰리기 시작했는데, 특히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요하는 것은 이러한 갈등이 무엇보다도 언어의 문제를 중심으로 첨예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언어가 문제시 되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한 답은 불어가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가졌던 의미를 찾아봄으로써 얻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 통치 이전부터 영국계 이민들과의 경쟁 속에서 자신들의 문화적 토양을 일구어내어야 했던 프랑스계 캐나다인들에게는 불어가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기능'을 뛰어넘어 그 이

상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 사람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시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불어란 공통된 언어의 사용이었습니다. 불어의 사용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계 이주민들과의 차별성을 가장 잘 지적해주는 지표로서, 그것은 특히 영국과의 기나긴 식민지 쟁탈전 속에서 영국계 이주민들과는 다른,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적 전통을 보전·계승·발전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한마디로 그것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하나의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각인시켜 주는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큼 영국으로 통치권이 이양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북미 지역 제1의 언어로서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게 된 불어의 운명이 이 지역 불어권 사람들에게는 결코 단순한 차원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들의 민족성, 문화가 맞는 정체성의 위기로 생각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는 곧 그것을 사용하는 집단을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고 그 집단의 문화를 키우는 토양이고 넋이니까요.

그리하여 영국통치기에 들어오면서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들의 언어인 불어와 자신들의 종교인 카톨릭을 보존하는 데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1774년의 “퀘벡헌장”은 종교와 언어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캐나다의 불어권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데, 물론 이렇게 된 데에는 불어권 캐나다인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못지 않게 영국의 유화적인 통치방식이 큰 역할을 합니다.

사실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에 주도권을 잡게 된 영국계 사람들로서는 프랑스계 사람들에게 억압적이고 급격한 언어 동화 정책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또 영국과 미국이 독립 전쟁으로 맞서 있던 당시의 정세를 고려해 볼 때도 지나친 억압정책보다는 유화정책이 더 유효하다고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국의 이러한 유화정책이 강압적인 동화정책에 비해 불어의 보존에 더 유리하게 작용한다고는 하더라도 그것은 여전히 영국 통치하의 상황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 불어가 사멸되지 않고 보존·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불어권 캐나다인들의 언어를 지키려는 남다른 노력없이 설명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언어를 지키려는 캐나다 불어권의 이러한 노력은 세계는 좀 남다른 감명을 주는 것이었

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역시 일제말기에 강압적인 동화정책을 펼친 일본에 의해서 우리의 언어가 말살될 뻔한 쓰라린 경험을 한 바 있고, 그를 통해 자신들의 언어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본 제국주의는 40년의 한국 강점기간 동안 한국인의 주체성을 말살하려는 끈질긴 야욕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1931년 만주 점령 이후 계속 팽창주의 정책을 추구한 일본 제국주의는 1937년 중국침략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해지자 2200만 한국인(1935)들을 강제로 일본인으로 동화시키려 하는 가운데, 계획적인 언어 말살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하여 1938년 3월 4일, 천황 칙령 103호 “신조선 교육령”을 공포하여 정식과목이었던 조선어를 선택과목으로 개정하고 그 이듬해에는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을 전면 금지시킵니다. 또한 철저한 단속을 통해 가정에서의 한국어 사용마저 금지해 버립니다. 그 결과 총독부 조사에 따르면 1936년만 해도 0.8%의 한국인만이 일본어를 이해하는 정도였으나 3년 후인 1939년에는 한국인의 24%가 일본어를 이해하거나 능숙하게 사용할 줄 아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일본제국주의의 동화정책은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 “창씨개명”을 통해 한국인들의 성씨를 일본식 성씨로 바꾸게 하고 완전한 일본인이 되겠다는 “황국신민의 서약”을 맹세하도록 강요합니다.

일본인들의 동화정책이 이처럼 끈질기게, 또 언어정책을 통해 수행되었다는 사실은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언어가 어떤 민족의 주체성을 지키고 보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세기의 역사를 대략 돌이켜 보더라도 대부분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 통치 정책의 제 1 목표로 식민지의 언어를 말살하거나 무력화시키고 자국의 언어 사용을 강제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의 언어를 말살하려 한 것은 한국인들이 일본어밖에 할 줄 모른다면 한국인들의 주체성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따라서 자연 일본인으로 동화되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인들 역시 자신의 언어를 잃는 것이 곧 민족의 정수를 잃는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지식인들은 갈수록 심해지는 일제의 언어 동화 정책에 맞서 한국어의 학술적 연구를 통하여 민족 의식을 고양하고 주체성을 보존하려 했습니다. 그러자 일제는 1942년 한국어 연구단체로서 조선어 사전 편찬을 준비하던 조선어학회 회원들을 반국가적 선동혐의로 체포하여 한국어 연구를 탄압합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조선어학회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은 언어를 지키기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저에게는 캐나다 불어권 지역 주민들의 언어보존 노력을 한층 더 공감하게 해 주는 사건입니다. 물론 영국통치하의 캐나다 불어권의 언어 상황과 일제하 우리의 언어 상황 사이에는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동화를 강요하는 거대한 외부 세력의 위협 속에서도 언어를 정체성과 주체성의 확립 수단으로 간주하여 그것을 보전하려고 애썼다는 점일 것입니다.

한 민족의 주체성의 확립에 있어서 언어가 갖는 중요성은 캐나다 역사 과정의 제4기로 볼 수 있는 캐나다 연방기, 그 중에서도 특히 “조용한 혁명”이 시작된 1960년대 이후의 캐나다 불어권의 상황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불어권에서 볼 때 캐나다 연방기는 캐나다에서 불어권의 지위가 점점 더 격하되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영국통치 하에서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 캐나다 불어권 지역의 경제적·수적 열세가 연방기에 들어오면 더욱 가속화됩니다. 그 결과 불어권은 10개의 영어권 주에 둘러싸인 1개의 불어권 주인 퀘벡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영어권에 동화되었으며, 자신들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수 민족의 피지배 계층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또한 불어도 퀘벡주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거의 사용이 되지 못했으며, 퀘벡주의 경우에도 소수의 영국계가 대부분의 경제권을 지배함으로써 일터에서는 영어를 쓰고 집에 돌아와서나 불어를 쓰는 불편한 상황이 유지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퀘벡주로 대표되는 캐나다 불어권은 영어권으로부터의 끊임없는 동화의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캐나다 불어권이 그간의 역사과정에서 보여 왔던 정체성 유지의 노력이 이 시기라고 해서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특

히 1960년대말부터 시작된 “조용한 혁명” 속에서 그러한 노력이 구체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용한 혁명이란 1960년대 말 퀘벡을 중심으로 한 캐나다 불어권 사회에서 일어나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의식개혁 운동으로, 여기서도 언어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조용한 혁명을 통해 퀘벡의 불어 사용자들은 그들 언어가 갖고 있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게 됩니다. 캐나다 정부가 영어와 불어, 이중언어 정책을 공식화하고 있다고는 하나 영어권의 거대한 실체 앞에서는 이러한 이중언어주의가 한갓 이상향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75년 중반부터 퀘벡의 언어 정책은 단일언어주의에서 벗어나 불어만을 사용하는 단일언어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날로 거세어지는 영어권의 위협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이자, 퀘벡지역 내에서나마 불어의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으려는 자구책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조용한 혁명 속에서 보여지는 이들 퀘벡인들의 언어정책이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을 지닌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중언어주의에서 단일언어주의로의 선회는 60년대말 비영어/불어계인 소수민족 이민자들의 언어선택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시작된 Saint-Léonard 에서 보여지듯이 자칫 불어사용을 원치 않는 그 지역 내 소수민족에게도 불어사용을 배타적으로 강요함으로써 오히려 이들의 반발을 사고, 이들의 타지역으로의 이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퀘벡이 자신의 정체성 확립에만 골몰한 나머지 캐나다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민족들의 다양성과 독자성을 인정치 못한다는 비난을 불러일으킬 위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조용한 혁명 이후 퀘벡에서 일어난 정체성 유지의 수단으로서 불어에 대한 자각은 그 이전까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한층 복잡하고도 현실적인 차원에서 그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도 그 해결 방안을 탐색 중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논의는 퀘벡이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언어를 통한 정체성 유지의 노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언어와 민족으로 구성된 복합사회인 캐나다가 그 궁극적 목표인 다양성 속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 동안 캐나다인

들의 꾸준한 노력과 슬기로운 지혜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캐나다인들이 그러한 노력을 통해 이 꿈을 이룰 경우, 그것은 “다양성 속의 통일성”을 추구하는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캐나다 불어권을 우리가 주의깊게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가 자신들의 정체성의 유지의 수단이면서 동시에 타민족 혹은 타문화권과의 조화를 이루는 토대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점에 그들이 서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